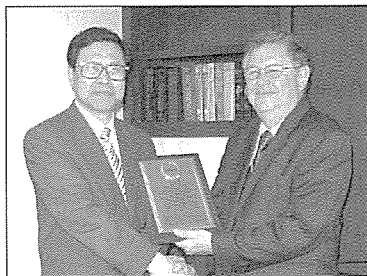


배길한 결핵연구원장, 美 백신재단 공로상 수상

배길한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장이 미국 락빌소재 에어라스 국제 TB 백신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 배길한 원장은 미국의 에어라스사와 공동으로 2003년 3월 rBCG30 백신 생산에 성공하였으며, 그 후 rBCG30는 미국 FDA 승인 및 꾸준한 연구 결과 가장 안전한 백신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재단은 이 공로를 인정하여 배길한 결핵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의 제럴드 세도프 박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결핵퇴치 홍보 포스터 서울지역 지하철 전 구간에 게시

대한결핵협회는 결핵퇴치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지난 7월부터 서울지역 지하철 전 구간 및 인천지하철에 포스터를 게시하였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내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함으로써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결핵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는 지금

에이즈백신 개발 네트워크 구축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부부가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19일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2억8700만달러(약2727억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게이츠 재단의 '에이즈, 결핵, 생식 건강' 프로그램의 니컬러스 헬먼 박사는 "지원액은 에이즈 백신 개발은 물론 에이즈와 에이즈 바이러스 부문에 있어서 게이츠 재단 사상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에이즈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는 16개 연구실로 구성되며, 전 세계 19개국 165여명의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게 된다.